

## 唯物論과 質的 生活 (三)

文君의 反駁에 答함

金永義

다시 力說하거니와 우리는 生産과 再生産 活動과 制度가 思想史에 미치는 그 影響을 否認하는 것이 아니라 歷史의 모든 事實을 엇지 經濟上 現象으로 解釋하려 하는가? 疑問함이다. 勿論 歷史는 民衆生活의 記錄이다. 大衆의 싸움을 赤裸裸히 記錄하여야 한다. 歷史는 偉人의 傳記도 아니고 王들의 族譜도 아니다. 또한 階級的 爭鬪뿐만이 아니다. 勿論 이러한 局部的 歷史도 歷史의 한 部分인 것은 事實이나 歷史 全體는 아니다. 宗教史, 政治史, 階級爭鬪史, 生産制度 變遷史와 모든 달은 것을 包含한 人的 삶의 進行을 記錄함이다. 文君은 『先輩』의 말을 引用하여 『人類는 彼 自身の 歷史를 作出한다. 그러나 그것은 彼の 自由스러운 材料로서가 아니다. 또는 彼가 스스로 選擇한 狀態에 잇서서가 아니다. 窺 前에 잇는 所與된 傳承狀態 下에 잇서서다.』고 論한다. 그야 勿論 絶對的 歷史 事實 創造者는 업슬 것이다.

歷史의 事變는 늘 因果의 關係가 있다. 그러나 『歷史의 作出』이 잇는 以上 人的 創造의 成分이 잇는 것이 안인가? 여기에서 基督教人은 自由意志를 가진 人格이 歷史를 맨든다고 論하는 바이다. 여기서 한 生産制度 안에서 天才를 내는 수도 잇고 온갖 化文的 生活이 나는 바이오 온갖 思想的 體系들이 創作된다고 結論한다. 勿論 神은 人的 歷史의 進行에 無關係하다 하지 못한다. 다만 神은 --最上 實在는-- 사람에게 人格的 自由意志를 주었다고 論한다. 무슨 理由로? 卽 歷史의 事實은 그만한 決論을 엇기에 滿足한 材料를 준다.

文君은 神觀에 對하여 『彼等の 所謂 神이란 者는 눈에 보이지도 안코 귀에 들리지도 안흐며 내음새도 나지 안흐며 소리를 잡을 수도 업다. 그럼으로 이것을 論評하기가 多少 困難한 點도 잇겟스나, 그러나 이것은 見解의 正當을 證明할 만한 根據가 업슴으로 否認하기는 또한 容易한 일이다. 그러면 엇재서 何等의 根據업는 이것이 二千年이라는 長久한 時日을 두고 人類를 支

配해 오는가?』하며 自問하고서 自答하기를 『이것은 結局 原始時代의 野蠻人의 無智가 神을 產出한 것이다. 그리하여 人間은 自己 本體에 맞추어서 神을 造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筆者는 文君이 正確한 對答을 하여서 自己의 疑問을 解決하였는지 몰으겠다. 神이 참으로 造作한 假像物이면 아직껏 文君이 사는 이 科學的 時代에 存在할 것이 아니다. 野蠻人의 無智가 產出한 神이 엇지해서 現代人에게 生的 힘을 주는가? 二千年 동안 人性을 속이고 虛僞가 行勢를 하였다는 말인가? 文君 人智는 虛僞를 그러케 長久히 容恕하지 안엇겠다. 그 만흔 學者들이 虛僞를 爲하여 煩惱하고 그 만흔 殉死者들이 虛僞를 爲하여 죽었다는 말인가? 基督教뿐이 아니라 모든 宗教가 想像的 偶像을 戲弄하였다는 말인가? 열매를 보고도 그 나무를 몰으나? 基督教 實行하여온 政治, 經濟, 社會運動을 觀察하면서 基督教의 神을 虛僞의 人物 作品이라 하는가? 虛僞의 神에게서 亞弗利加 土人을 爲하여 伯林大學의 教授職을 버릴 勇氣 날까? 虛僞를 밋고 十字架의 가시冠을 쓸 것인가? 虛僞의 神에게서 貧民窟 改良者가 나나 보라.

文君 君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만 實在라 하나? 내음새 나지 안흐며 소리를 잡을 수 업는 것은 다 存在하지 았나? 君은 人情이라는 것을 經驗하는가? 人情이 눈에 보이든가? 보리가 붓잡히든가? 君은 사랑을 經驗하여보았나? 귀에 들리든가? 내음새가 나든가? 筆者는 神의 存在를 여기서 論하려 아니한다. 萬若 스스로 經驗하지 못하는 사랑을 議論으로 辯證하지 못하면 君이 經驗 못하는 神의 存在를 몰으는 者에게는 사랑에 醉한 者는 밋친 듯할 것이다. 亦是 神의 存在를 經驗한 者는 他人에게 野蠻人 가티 無知하게 보일지도 몰은다. 그러나 神은 사랑의 本體인 것을 엇지하라? 宗教觀에 對하여 文君은 말하기를 宗教는 顛倒된 世界意識이다. 그러나 그 意識을 맨드러낸 世界 自體가 顛倒되어잇슴으로 宗教라는 顛倒된 世界意識이 만드러진것이라고 하였다. 果然한가?